

2016학년도 수능대비

수능특강 B

수학

변형 문제



1997학년도 수능 박목월 '이별가', 2001학년도 박목월 '나그네', 2005학년도 6모 박목월 '가정'

<p>산이 날 에워싸고</p> <p>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p> <p>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p> <p>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p> <p>아들 낳고 딸을 낳고</p> <p>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p> <p>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p> <p>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p> <p>산이 날 에워싸고</p> <p>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p> <p>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p> <p>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시'는 이렇게! 분석한다.</th>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내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화자</td> <td colspan="3">작품 내부/외부, 기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황</td> <td>현실</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서 태도</td> <td colspan="3">긍정/부정, 순응/저항, 비판/예찬, 자연친화 기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제</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형식</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상 전개 방식</td> <td colspan="3">시간의 흐름, 회상, 시간의 역전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장면의 변화, 초점화 선경후정, 수미상관, 시상의 전환/집약</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율</td> <td>반복 율격</td> <td>동일한/유사한, 음/시구/시행/통사구조 음보율</td> <td>음수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미지</td> <td>감각적 상징적</td> <td colspan="2">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 복합 상승↔하강, 생성↔소멸, 밝음↔어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표현 기법</td> <td>수사법 상징 관념의 구체화 어조</td> <td>은유 직유 원형적 객관적 상관물 대화체 독백체</td> <td>의인 도치 대구 철의 역설 반어 관습적 (제도적) 개인적 (창조적) 감정이입 경어체 단정적</td> </tr> </table>	'시'는 이렇게! 분석한다.					내용	화자	작품 내부/외부, 기타()			상황	현실			정서 태도	긍정/부정, 순응/저항, 비판/예찬, 자연친화 기타 :			주제				형식	시상 전개 방식	시간의 흐름, 회상, 시간의 역전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장면의 변화, 초점화 선경후정, 수미상관, 시상의 전환/집약			운율	반복 율격	동일한/유사한, 음/시구/시행/통사구조 음보율	음수율	이미지	감각적 상징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 복합 상승↔하강, 생성↔소멸, 밝음↔어둠		표현 기법	수사법 상징 관념의 구체화 어조	은유 직유 원형적 객관적 상관물 대화체 독백체	의인 도치 대구 철의 역설 반어 관습적 (제도적) 개인적 (창조적) 감정이입 경어체 단정적
'시'는 이렇게! 분석한다.																																								
내용	화자	작품 내부/외부, 기타()																																						
	상황	현실																																						
	정서 태도	긍정/부정, 순응/저항, 비판/예찬, 자연친화 기타 :																																						
	주제																																							
형식	시상 전개 방식	시간의 흐름, 회상, 시간의 역전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장면의 변화, 초점화 선경후정, 수미상관, 시상의 전환/집약																																						
	운율	반복 율격	동일한/유사한, 음/시구/시행/통사구조 음보율	음수율																																				
	이미지	감각적 상징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 복합 상승↔하강, 생성↔소멸, 밝음↔어둠																																					
	표현 기법	수사법 상징 관념의 구체화 어조	은유 직유 원형적 객관적 상관물 대화체 독백체	의인 도치 대구 철의 역설 반어 관습적 (제도적) 개인적 (창조적) 감정이입 경어체 단정적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생계 → 생활감 → 정신의 달관'으로 점층적인 시상 전개를 하고 있다.
- ③ 대상을 의인화하여 이상적인 공간을 지향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명령형 어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화자는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자연이 말하는 것을 시적 화자가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며 시인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깨닫고 있다.
- ③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생계 → 생활 → 삶'의 순으로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간접화법을 통해 화자인 '나'가 대상인 '산'으로부터 말을 듣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대상을 의인화 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시적 화자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직유법을 사용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간접 인용을 통해 시적화자가 들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4. 이 시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에서 ‘그믐달’은 어딘가에 없매이지 않은 초월적인 자연의 모습을 상징한다.
- ② ‘들쭉레’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자연의 모습을 의미한다.
- ③ ‘산’은 자연을 의미한다.
- ④ ‘산’이 말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오히려 자연을 주제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 ⑤ ‘사위어지는’ 등의 표현 등은 현실 속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5.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텃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장터>

- ① 윗글에 비해 <보기>는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갈등이 제시되어 있다.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자연 친화적이고 탈속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 모두 의인법을 통해 삶의 애환을 차분하게 노래하고 있다.
- ④ <보기>에 비해 윗글은 자연물을 통해 대립의 구조를 갖추며 시적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윗글과 <보기> 모두 명령어투를 사용하여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여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6. <보기>는 윗글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밑줄 친 ‘시적 화자의 내적 결단’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시의 경우 ‘산’이 시적 화자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지만, 심층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시적 화자의 내적 결단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① 세속적인 삶에 없매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겠다.
- ② 세상과 화해를 하고 사회적인 삶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 ③ 아낌없이 주는 자연처럼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지녀야겠다.
- ④ 목숨에 집착하지 않고 담담한 자세로 운명에 순응해야겠다.
- ⑤ 자연이 시련에 흔들리지 않듯이 의지를 굳건히 지켜야겠다.

15-수특 B	실전모의 B-1. 현대소설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실전 모의	

2001학년도 수능 윤홍길, '장마'

[앞부분의 줄거리] '나'의 집 문간방에 세를 얻어 사는 권 씨의 아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권 씨는 아내를 입원시켰지만 수술 보증금이 없어 집주인인 '나'에게 돈을 빌리러 '나'의 직장인 학교에까지 찾아온다. '나'는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권 씨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마음을 바꾸어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보증금을 마련한다. 보증금 덕분에 권 씨의 아내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는데, 그날 밤 '나'의 집에 강도가 든다.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땀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 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

“개수작 마! 그때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꼭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영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 배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혹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냥 지쳐 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 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 안에서 어미 아버 없이 오누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는 잠옷 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무것도 아냐.”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뭘 염려는 없어, 전셋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 나는 끝내 한 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 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의는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뿔뿔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 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울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시점	1인칭 주인공 3인칭 관찰자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제한 / 무한)	전기성	유 / 무
서술 특징	① 직접 or 간접 ② 대화, 행동 중심 or 설명, 요약 or 의식의 흐름 ③ 심리 표현 : 유 or 무		우연성	유 / 무
			운문체 / 판소리체	유 / 무
시간 / 구성	순행 / 역행 / 병행		서술자 개입	유 / 무
배경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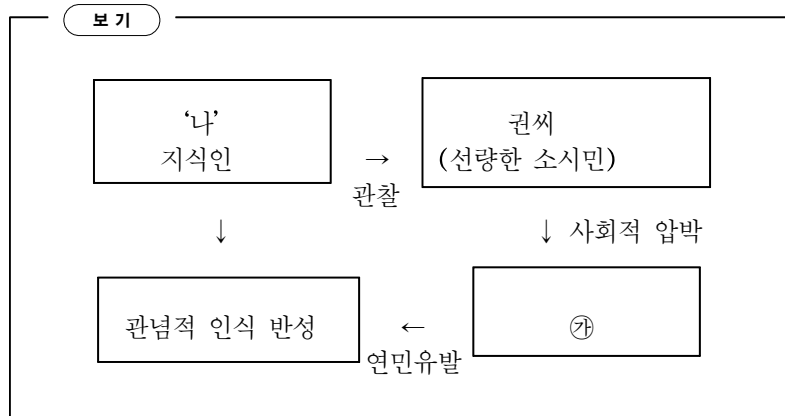
176. 핵심 정리

- ① 시대상과 성격 등을 드러내는 (개성적인 /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 ② ‘권 씨’는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 ×)
- ③ (사실 / 과장)적인 문체와 예리한 문제의식으로 독특한 리얼리즘의 경지를 개척했다.
- ④ 등장인물인 ‘나’의 관점에서 주요 사건과 인물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있다. (○ ×)
- ⑤ 주로 대화와 묘사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
- ⑥ (나 / 권 씨) : 소시민의 삶을 외면하지 못하면서도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⑦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한다. (○ ×)
- ⑧ (열린 / 닫힌) 결말 구조 형식을 취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 ⑨ : 가난한 생활로 상처받은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 ⑩ 등장인물이 주로 소시민인 이유 : 소시민으로 전락해 버린 지식인들의 모습이 (특수화 /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⑪ ()에 애착을 보이는 권 씨의 행동은 현실에서 보상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상징으로 대치하는 대상 심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는 ‘최후의 보루로 씨 지키고자 하는 자아’이자, ‘계층적 정체성에 집착하는 강박증적 심리의 표상물’이라 할 수 있다.

177.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것을 다 아는 관점에서 불완전한 인물들의 성격을 보충하고 있다.
- ② 등장인물인 ‘나’의 관점에서 주요 사건과 인물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있다.
- ③ 사건에 참여하지 않고 완전한 객관적 시각을 통해 인물들의 행동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⑤ ‘나’는 사건에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어 필요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78. 이 글의 인물과 작품 구조를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살 ② 도둑질 ③ 구두 닦기 ④ 아파트 분양 ⑤ 집주인과의 갈등

179. 윗글을 <보기>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한 사람은?

보기

소설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독특한 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 해당 작품이 가지는 미적 구조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사건, 서술시점, 시공간적 배경, 인물 등 작품을 이루는 내적 요소들의 상호 관계와 통일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지연 : ‘나’와 ‘권씨’ 두 인물을 통해 작가는 현대인이 가진 모순된 인간관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어.
- ② 재환 : 권 씨가 도둑질을 한 것은 인간의 삶이 도덕보다는 경제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
- ③ 영희 : 곤궁한 사정으로 도둑질하는 권 씨를 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 ④ 민수 : 소시민적 지식인 권씨의 행위를 통해 당시 사회가 앓고 있었던 빈부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그린 것으로 보여.
- ⑤ 정민 : 사건에 밀착한 서술자를 통해 권씨의 심리와 갈등을 상징적 기법과 사실주의적 묘사로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어.

CONTENTS

e+PLUS 수능특강 B

문학 변형 문제

현대시 B-1.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6
현대시 B-1. <송수권, '까치밥'>	11
현대소설 B-1. <최일남, '흐르는 북'>	14
고전문문 B-1. <작자 미상, '서경별곡(西京別曲)'>	19
고전문문 B-1.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	21
고전산문 B-1. <작자 미상, '동명왕 신화'>	22
현대시 B-2. <이동주, '강강술래'>	24
현대시 B-2. <정현중,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26
현대소설 B-2. <김승옥, '역사(力士)'>	28
고전문문 B-2. <충담사, '안민가(安民歌)'>	32
극문학 B-2. <윤선주, '황진이'>	34
현대시 B-3. <신동엽, '향아'>	36
현대시 B-3. <김광규, '상행'>	40
현대소설 B-3. <이상, '날개'>	44
고전문문 B-3.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48
고전소설 B-3. <박지원, '광문자전(廣文者傳)'>	52
현대시 AB-4. <문정희, '겨울 일기'>	56
현대소설 AB-4. <현진건, '고향'>	60
극문학 AB-4. <이강백, '결혼'>	64
고전소설 AB-4. <작자 미상, '수궁가'>	70

실전 모의고사 변형 문제

B-1. 현대시 <신석정, '들길에 서서'>	76
B-1. 현대시 <김용택, '섬진강15'>	78
B-1. 현대소설 <윤홍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82
AB-1. 고전 운문 <대추 불~, 동창이~, 눈발 갈아~>	86
B-1. 고전소설 <작자 미상, '최고운전'>	88
B-1. 현대수필 <김현, '두꺼운 삶과 얇은 삶'>	92
B-2. 현대시 <김관식, '거산호(居山好)2'>	96
B-2. 현대시 <이성부, '산길에서'>	100
B-2. 현대소설 <이순원, '말을 찾아서'>	104
B-2. 고전 운문 <방 안에~, 반중 조흥~, 서방님~>	109
AB-2. 고전산문 <작자 미상, '적벽가'>	111
B-2. 극문학 <오태석, '춘풍의 처'>	116

정답 및 해설	123
---------	-----